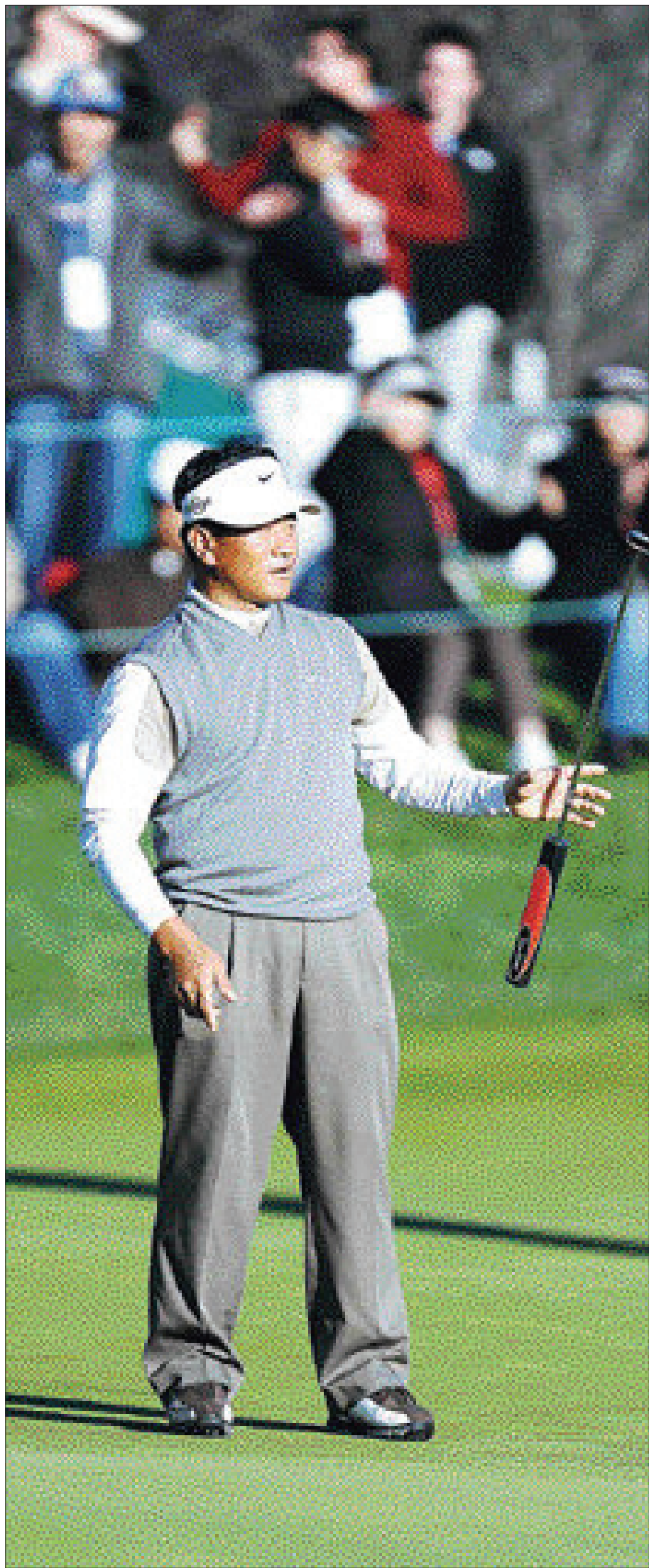


최경주 “유종의 미 거두겠다”



최경주가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대회인 웨브론월드첼린지대회 1라운드 18번홀에서 퍼트를 실수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언더 2위...선두와 2타차
앤서니 김 1언더 공동 4위
PGA 웨브론월드첼린지 1R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새로운 캐디와 호흡을 맞추며 타이거 우즈 초청대회이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대회인 웨브론월드첼린지 첫날 상위권에 자리했다.
최경주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의 서우드골프장(파 72·7천27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부 위클러(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4언더파 68타를 친 선두 짐 퓨릭(미국)과는 2타차. 골프황제 우즈의 초청장을 받은 16명만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는 총상금 575만달러에 우승 상금 135만달러가 걸려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시즌을 마감하는 최경주는 새로운 캐디 마이클 웨이트와 함께 첫 대회를 치렀다. 웨이트는 2005년 US오픈에서 마이클 캠벨(뉴질랜드)의 우승을 도왔다.
최경주는 그동안 앤디 프로저와 호흡을 맞췄는데 내년에는 두명의 캐디와 시즌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15번홀까지 1타를 줄이던 최경주는 16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3퍼트를 하는 바람에 파에 그쳤다.
하지만 최경주는 17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선두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했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1언더파 71타를 쳐 페덱스컵 우승자 비제이 싱(파지)를 비롯해 현터 메이헌(미국),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와 공동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니클라우스·소렌스탐
국제골프연맹 홍보대사

잭 니클라우스(미국)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국제골프연맹(IGF) 홍보대사로 임명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앞으로 니클라우스와 소렌스탐은 골프의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니클라우스는 “선수과 코스 설계사로서 나는 골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또 지금도 매일 새로운 나라에 골프가 소개되고 있다”라며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 올림픽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렌스탐 역시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데 힘을 보태게 돼 영광”이라며 “이제 현역에서는 물러났지만 골프가 세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 품새선수권 3연패
금 8개·은 1개·동 1개

체대)과 여자 성인2부(31-40세) 송남정(참태권도)은 대회 3연패를 이뤘다.
한국은 서울에서 열린 1회 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했고, 인천에서 치러진 2회 대회에서는 16개 중 13개 부문에 참가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한국 선수단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한국 역시 ‘태권도 종주국’

한국이 세계태권도연맹(WTF) 주최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서 3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9일 오전(한국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막을 내린 제3회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했다고 밝혔다.

이란(금 3, 은 3, 동 4)과 스페인(금 3, 은 1, 동 5)이 한국의 뒤를 이었다.
한국은 세계 50개국, 3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6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가 걸려 있는 개인 부문에만 나섰으며, 출전 선수 모두 메달을 목에 걸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남자 성인1부(19-30세) 김보현(한국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풀럼: 미들스브로)(23: 50·MBC ESPN)
▲여자프로농구(신세계: 우리은행)(16: 50·SBS스포츠)
▲V리그(LIG손보: 대한항공)(14: 40·KBS n 스포츠) <도로공사: GS칼텍스>(16: 40·KBS n 스포츠)
21일(일)

- ▲프로농구(삼성: KCC)(14: 50·SBS스포츠) <전지랜드: 동부>(16: 50·MBC ESPN)
▲FIFA 클럽월드컵 2008 결승(19: 20·SBS스포츠)
▲08/09 V리그(현대캐피탈: 삼성화재)(13: 40·KBS n 스포츠) <흥국생명: KT&G>(15: 40·KBS n 스포츠)

- 20일(토)
▲프로농구(동부: KTF)(14: 50·MBC ESPN) <모비스: KT&G>(14: 50·SBS스포츠) <LG: SK>(14: 50·Xports)

“내년엔 큰 것 노릴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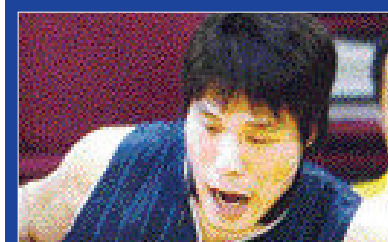
■ KIA 이용규 ‘장타자 변신’ 선언

“날랜들이 이용규, 장타자로 변신을 꿈꾼다.”
뜨거운 2008년을 보낸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사진)가 새로운 꿈을 향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 이용규는 난적 일본의 마지막 타구가 자신의 글러브에 빨려들어간 순간을 잊지못한다. 감정을 억누르며 공 하나하나에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던 이용규는 결승 진출이 확정된 순간에야 비로소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병역면제로 부담없이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기뻐했다는 이용규는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
“WBC에 참가하게 되면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체력 문제 등으로 시즌 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야구를 해왔던 선배들이 잘해줘 내가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보답하는 의미로 기회가 되고 실력이 될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 뛰겠다.”
이용규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신의 우상인 일본의 아오키와 그라운드에서 서는 영광도 얻었다. 일본 야구를 보던 이용규는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선수가 바로 2005년 202개의 안타를 때려낸 아오키였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과 경기가 있는 날 일부터 경기장에 일찍 나가 아오키가 연습하는 걸 지켜 봤다. 직접 보고 함께 경기에 나설 수 있어서 좋았다.”



아오키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호타준족’ 이용규는 비약을 위한 ‘합방’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단 하나의 홈런도 때려

내지 못했던 이용규는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초점을 맞춰 근력을 키웠다.
“순발력과 스피드로 지금 위치에 이르렀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한 단계 발전할 필요가 있다. 홈런이 없는 타자는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KIA에 처음 왔던 2005년 5개의 홈런을 때렸던 만큼 앞으로는 노리수를 가지고 장타에 대한 욕심도 내겠다.”
2005년 LG에서 이적하자마자 KIA의 마스코트로 급부상한 이용규는 2006년에는 골든 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KIA의 확고한 주전에서 국가대표 외야수로 발돋움 거듭한 이용규이지만 팀 성적은 언제나 아쉬움이다.
“시즌 시작할 때마다 팀 전력이나 분위기를 보면 4강은 문제없을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상하게 늘 결과가 좋지 않다. 예쁘게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만이 안 풀리면 화도 내고 오기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개인 한 사람의 행동 같지만 팀에게 분명 팀 분위기와 상대팀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는 SK와 두산의 팀컬러가 부럽다.”
팀 성적에 목마른 이용규는 대선배 이종범과 함께 ‘V10’의 영광을 누리는 게 소원이다.
“이종범 선배가 은퇴했는데 시달리고 있지만 이종범, 이대진 선수가 같은 야구의 전설들과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것을 배웠고, 후배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더 그라운드를 뛰고 싶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독과 불화설’ KCC 서장훈
전자랜드로 이적

‘국보급 센터’ 서장훈(34·사진)이 팀 불화설이 나돈 가운데 인천 전자랜드로 전격 이적했다. 전주 KCC는 19일 서장훈과 가드 김태환(23)을 전자랜드로 보내는 대신 루키 강병현(23)과 포워드 조우현(32), 가드 정선규(28)를 받아들이는 2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서울 삼성에서 KCC로 이적했던 서장훈은 시즌 도중 다시 전자랜드로 팀을 옮겨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전자랜드는 서장훈을 21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동부와의 홈 경기부터 출전시킬 예정이지만 서장훈의 몸 상태에 따라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 전자랜드는 연세대 시절 은사인 최희암(53)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팀으로 최근 서장훈과 허재 KCC 감독 간 불화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차기 행선지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중앙대 출신 신인 가드 강병현이 매력적인 카드도 지목된 데다 정영삼, 황성인 등 가드 라인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전자랜드는 일단 서장훈을 영입하면서 골밑 강화에 탄력을 받는 동시에 전력 급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KCC 역시 강병현과 조우현, 정선규 세 명을 영입하면서 가드와 슈터 문제를 해결하고 공수양면에서 더욱 빠른 농구를 전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트레이드는 지난 17일 열린 KCC와 안양 KT&G 경기에서 서장훈이 갑작스럽게 결장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KCC는 당시 서장훈이 감기 몸살로 경기장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재 감독과 감독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이적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허재 감독이 지난 14일 열린 울산 모비스와 경기에서 서장훈에게 단 4분6초의 출전 시간을 주고 신인 하승진(27분5초 출전)에게 사실상 주전 센터의 역할을 맡게 한 뒤 둘의 불화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농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연합뉴스

박지성 “결승전 꼭 뛰고 싶다”

내일 클럽월드컵 출전 기대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세계 최강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2008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 무대에 한국인 최초로 설 수 있을 거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한 맨유는 21일 오후 7시30분 일본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올해 남미 클럽 최강진(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챔피언인 LDU 키토(에콰도르)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박지성은 이 경기에 나오면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결승전 무대를 밟는 주인공이 된다.

일본은 박지성이 프로에 데뷔한 곳이어서 그의 결승전 출전 의욕은 어느 때보다 높다.
명지대 1학년이던 2000년 박지성은 일본 2부리그인 교토 퍼플상가에 진출하며 프로 선수가 됐고 2002년에는 퍼플상가를 1부리그에 올려놓고 나서 유럽에 진출했다.
박지성은 소속 리그에서 절정에 오른 경기력을 축구 인생에서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마음껏 펼칠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18일 감바 오사카(일본)와 4강전에 결장하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박지성은 “맨유 모든 선수는 결승전에 출전하고 싶어졌고 나도 그 중 한 명이다. 결승전에는 뛰고 싶다”고 말했다.
출격 가능성도 큰 편이다. /연합뉴스

